



[산업] 잘 나가는 기아 K8 하이브리드 1리터로 18km달린다 06



Life

[라이프] KGC인삼공사 시대에 맞춰 진화하는 홍삼제품 너



# 코로나 사망자 23% 요양시설서 감염... 전문 인력 배치해야

## 노인요양시설 13곳서 확진자 발생 대응지침 현실성 결여 등 문제점 감염병 예방 교육체계 마련해야

서울시 코로나19 사망자 중 감염경로가 요양병원·시설이었던 경우가 전체의 약 23%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실성이 떨어지는 노인요양시설에서의 방역 지침을 보완하기 위해 서울시 차원에서의 감염병 대응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5일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재단에 따르면 이달 2일 0시 기준 관내 코로나19 사망자 451명 가운데 감염경로가 요양병원·시설이었던 사례가 전체의 22.8% (103명)로 1위였다.

서울연구원이 지난 4일 공개한 '서울시 노인요양시설에서의 코로나19 감염 실태와 과제' 정책리포트에 의하면 작년 말 기준 시내 노인요양시설 205곳 중 13곳(6.3%)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다. 관내 노인요양시설발 확진자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676명을 기록한 5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역 광장에 설치된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한 어르신 이 검사를 받기 위해 줄을 서 있다. /뉴스시스

수는 입소자 120명, 종사자 65명 등 총 185명으로 집계됐다.

연구진이 서울시 노인요양시설의 코로나19 감염 발생 경로를 분석한 결과 전체 13곳 중 92%가 종사자로부터 감염된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시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13개 노인요양시설 가운데 집단감염으로 이어지지 않았

던 곳은 4곳이었고, 이 중 3곳은 종사자 선제검사를 통해 감염 사실을 미리 확인했다고 연구진은 설명했다.

노인요양시설 내 코로나19 확진자 규모를 살펴보면 확진자가 1명 나온 시설이 4곳(30.8%)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31명 이상, 2~5명이 각 23.1%, 21~30명이 15.4%, 6~10명이 7.7%로 그다음이었다.

해당 보고서에서 연구진은 서울시 노인요양시설 관계자를 심층 인터뷰한 결과 ▲방역 및 대응지침의 시의성과 현실성 결여 ▲감염병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소통창구 부재 ▲감염병 예방교육 체계 미확립 ▲서류 기반의 형식적·소극적 모니터링 ▲돌봄 대상을 고려한 포괄적 지원책 미비 ▲방역 물품과 요양보호사 부족 등의 문제점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손창우 서울연구원 도시사회연구실 연구위원은 "(현 감염 대응 체계는) 서울시→자치구→노인요양시설로의 대응 지침 하달에 초점을 맞춘 일방향이 커뮤니케이션 위주로 이뤄져 있다"며 "요양시설의 애로사항과 방역지침에 관한 질문 대응 등 감염병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소통창구가 부재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별도의 전문적인 교육 없이 지침에만 의존하다 보니 현장에서 잘못된 방식으로 방역을 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서울시는 올해 초부터 노인요양시설 방역 담당자들을 상대로 비대면 방역과 감염병 예방 교육을 진행했

으나 노인요양시설 종사자 대상의 지속적이고 전문적인 감염병 예방교육 체계는 확립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연구진은 노인요양시설 전문 인력 확충, 감염병 예방교육 강화, 시설 운영 정상화 및 모니터링 방식 전환을 제안했다.

손 연구위원은 "노인에게서 발생하는 감염증상을 감별하고 이에 대처할 수 있는 훈련을 받은 간호사 배치가 필요하다"며 "서울시에서 노인전문간호사를 배치한 요양시설에 인건비를 지원하는 방식의 시범사업 검토가 가능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어 "지역사회 내 방문요양기관, 노인 맞춤형 돌봄서비스 제공기관과 협력 체계를 구축해 비상시에 대비할 요양보호사 인력을 늘리고 감염병 예방 교육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며 "서울시의 사회서비스원 기능을 강화해 유류 요양보호사 인력을 늘리고 감염병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긴급돌봄 인력으로 파견하는 방법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현정 기자 hjk1@metroseoul.co.kr

# 세종대로 사람숲길 완공... 보행로 확 늘렸다

## 보행공간 서울광장 면적의 2배 도보해설관광 신설 등 콘텐츠 확대

서울시는 세종대로 사거리에서 송례문을 거쳐 서울역까지 이어지는 '세종대로 사람숲길' (총 길이 1.55km) 조성사업을 완료했다고 5일 밝혔다.

세종대로 일대 기존 9~12차로를 7~9차로로 줄이고 보행로 폭을 최대 12m로 넓히는 공사를 작년 7월부터 시작해 9개월 만에 마쳤다고 시는 설명했다.

차도가 사라진 자리엔 서울광장(6449㎡) 면적의 2배가 넘는 보행공간



세종대로 사람숲길 조성 후 송례문 일대. /서울시

이 1만3950㎡ 규모로 만들어졌다. 세종대로 전 구간에는 자전거 도로도 새로

게 생겼다.

시 관계자는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들이 광화문광장, 덕수궁, 송례문 등 세종대로의 대표적 명소를 막힘없이 이동할 수 있게 됐다"며 "사람숲길 도보해설관광 코스를 신설하는 등 관광 콘텐츠도 확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시는 북창동~남대문시장~서울역의 쇼핑과 먹거리 상권, 문화·관광을 보행로 연결,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했다.

/김현정 기자

# 서울파트너스하우스 입주기업 120억 성과

## 코로나에도 매출 21% 증가 신규 입주기업 16개사 모집

서울시는 '서울파트너스하우스' 입주기업들이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작년 한해 120억원의 매출을 올렸다고 5일 밝혔다. 이는 2019년(99억원)과 비교해 21% 증가한 수치다.

앞서 시는 지난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들이 비즈니스 전용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서울파트너스하우스를 조성해 개관했다. 2018년 4월부터는 애니메이션, 캐

릭터, 만화, 영화 등 우수 문화콘텐츠 IP를 보유한 콘텐츠 기업(창업 7년 미만 스타트업과 예비 창작자)이 입주해 비즈니스를 지원받고 있다.

시는 입주기업에 투자 유치 역량 강화를 위한 기업설명회(IR) 집중 컨설팅, 마케팅·재무·노무 등 경영 자문, 맞춤형 성장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시는 오는 26일 오후 5시까지 신규 입주기업 16개사를 모집한다. 사업자등록(주민등록) 소재지가 서울인 문화콘텐츠 스타트업 및 창작자면 지원 가능하다. /김현정 기자

# 서울시, 어르신 8000명에 디지털 교육

## '어디나 지원단' 100명 가동

서울시는 노년층의 디지털 기기 활용 역량을 높이기 위해 '어디나 지원단' 100명을 구성해 가동한다고 5일 밝혔다.

어디나(어르신 디지털 나들이) 지원단 사업은 서울 전역 복지관, 도서관, 경로당에서 어르신 강사가 디지털 취약계층에게 스마트폰이나 키오스크 사용법 등을 알려주는 '노노(老老)케어' 방

식의 교육 프로젝트다. 시는 어디나 지원단 사업을 통해 올해 어르신 8000명에게 디지털 기기 사용법을 알려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시는 ▲인공지능 로봇 '리쿠'를 활용한 디지털 교육 ▲디지털 배움터 교육 사업 ▲무인기기(키오스크) 체험존 확대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우선 시는 이달부터 어르신과 미취학 아동 4000명을 대상으로 리쿠를 활용한

교통정보 찾기, 열차 예매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배움터로 선정된 주민센터, 복지관 등 집 근처 생활SOC 140곳은 오는 10월부터 본격적으로 디지털 교육에 나선다. 디지털 금융사기 예방법부터 유튜브 콘텐츠 만들기, 코딩 교육 등이 교육과정에 포함됐다.

생활 곳곳에 스며든 무인기기 이용법을 익힐 수 있는 키오스크 체험존도 늘어난다. 시는 지난해 12월 생활복지시설 46곳에 체험용 기기를 설치한 데 이어 올 상반기 내 50대를 추가로 보급하기로 했다. /김현정 기자

오늘의 날씨

해돋이 / 05:32 | 해질 / 19:26

5월 6일 (木) 음력 : 3월 25일

수도권 날씨 10~23°C

운동 지수, 빨래 지수, 세차 지수, 외출 지수

지역별 날씨: 연천 7/22, 동두천 7/23, 가평 4/22, 파주 6/21, 서울 10/23, 양평 6/24, 용인 10/23, 수원 10/23, 인천 12/20, 평택 6/23, 백령도 11/16

자료제공: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현대차, 북미서 싼타페 등 39만대 리콜...엔진 화재 가능성 ▲파우치 "아동 코로나19 백신 접종, 올해 말이나 내년 초" /사진 뉴스시스

▲"미 국무장관, 中 주최 안보리 고위급 회의 참석 예정" ▲엘런 "과열 막기 위해 금리 올라야 할 수도"...파장 일자 진화



▲미 남부 앨라배마 등 폭풍우와 돌발 홍수로 '비상사태' ▲美 뉴욕시, 올해 아시아계 증오 범죄 5배 급증 /사진 뉴스시스

버스타비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